

2024. 1. 21.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마가복음 Mark 8:1-10

제목: 불쌍한 무리들을 먹이시다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8:1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ESV) 8:1 In those days, when again a great crowd
had gathered, and they had nothing to eat,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said to them,

8:2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8:2 "I have compassion on the crowd, because
they have been with me now three days and
have nothing to eat.

8:3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8:3 And if I send them away hungry to their homes, they will faint on the way. And some of them have come from far away.”

8: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빈 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8:4 And his disciples answered him, “How can one feed these people with bread here in this desolate place?”

8:5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일곱 개가 있습니다" 하였다.

8:5 And he asked them, “How many loaves do you have?” They said, “Seven.”

8:6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8:6 And he directed the crowd to sit down on the ground. And he took the seven loaves, and having given thanks, he broke them and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and they set them before the crowd.

8:7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8:7 And they had a few small fish. And having blessed them, he said that these also should be set before them.

8:8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8:8 And they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y took up the broken pieces left over, seven baskets full.

8:9 사람은 사천 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8:9 And there were about four thousand people. And he sent them away.

8:10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8:10 And immediately he got into the boat with his disciples and went to the district of Dalmanutha.

본문 내용 살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통 ‘7 병 2 어’라고 부릅니다. 7 개의 떡(빵)과 물고기 2 마리를 4 천명을 먹이셨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5 병 2 어’로 5 천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 장에 나오는 5 병 2 어는 갈릴리 유대 땅에서, 오늘 7 병이어는 이방인 지역(데가볼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한 소년이 도시락을 들고 왔었고, 지금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전도를 다녀온 직후였고,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방지역을 지나서 오시다가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후였습니다. 그때 기적 후에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시고 밤 중에 물위를 걸어서 배로 가십니다. 지금은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 달마누다로 가십니다.

두 사건이 비슷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방인’에게 베푸신 기적이라는 면에서 우리와 더 가깝습니다. 2 절. ‘가없다’(표준새번역), 혹은 ‘불쌍히 여기다’(개역개정) 모두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표준새번역) 8:2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ESV) 8:2 "I have compassion on the crowd, because they have been with me now
three days and have nothing to eat.

(개역개정) 8:2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 **그 불쌍한 무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무리의 대부분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3 일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들 모두 예수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3 절.
오히려 그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질까봐 걱정하십니다.

8:3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8:3 And if I send them away hungry to their homes, they will faint on the way. And
some of them have come from far away."

그때의 사회 구조는 지금보다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 데,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인생 문제 앞에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신앙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서야 예수를 찾고, 어려움을 만나야 기도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교회 출석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은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고도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고 평탄할 때, 순조로울 때가 진짜 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내 힘으로 일이 잘 되어 갈 때,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할 때,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롬 7:24 절, 거의 60 이 되었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 ‘곤고한 사람’ 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표준새번역) 로마서 7:24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ESV) Romans 7:24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개역개정) 로마서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이 팔복(마 5 장)을 가르치시면 말씀하셨던
3 절, ‘마음(심령)이 가난한’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을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5: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ESV) Matthew 5: 3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4 절. 그 무능감이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더러움을 주 앞에서
통곡하며 슬퍼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표준새번역) 5:4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ESV) 5:4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해야 5 절, 온유해 집니다.

우리는 고집세고, 교만하고, 자존심만 세서 꺾이지
않고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표준새번역) 5:5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ESV) 5:5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기보다

“왜?”라고 질문부터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무리인 겁니다. 뭣도 모르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바른 길과 방법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데가볼리의 그 이방인 무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 주께서 은혜로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7 병 2 어의 기적에서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세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번째는 그 엄청난 능력을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능력은 신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보잘 것 없는 사람들 한 끼 먹이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이 능력으로 5000 명의 유대인들을 먹이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물질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잘만 사용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돌을 금으로 만들고, 날씨와 바람을 마음대로 부리고, 하늘을 날고, 물위를 걷고, 하늘의 천사 군대를 동원하고, 번개와 천둥을 불러오고, 지진과 화산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나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유명해 지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편한 삶을 사는 것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통제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고, 그 불쌍한 이방인 무리들, 죄를 뱉어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특징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 우리의 요구 때문에 하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특징은 누군가를 돌볼 때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아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요구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도 모르지만 부모는 그것을 해 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돌보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히 4:16 절을 보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필요한 것을 필요한 그 때 주시는 은혜’와 함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구절절 다 아뢰는 것이 아니구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개역개정) 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ESV) Hebrews 4:16 Let us then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표준새번역) 히브리서 4:16 16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세번째 특징은 주님은 주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본문 1 절. 무리들을 먹이시는 일에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구지 저들이 가없다, 불쌍하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어차피 제자들은 별도움이 안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50 명씩, 100 명씩 앉게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눠 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들여서 제자들을 모아 이야기 하십니다.

(표준새번역) 8:1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ESV) 8:1 In those days, when again a great crowd had gathered, and they had nothing to eat,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said to them,

막 6:37 절. 5 천명 유대인을 먹이실 때는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방인 4 천명을 먹이시는 장면에서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을 참여시키시고, 성장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가르치시는 것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표준새번역) 마가복음 6:37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이백 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였다.

(ESV) Mark 6:37 But he answered them,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And they said to him, "Shall we go and buy two hundred denarii worth of bread and give it to them to eat?"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께 받을 때, 하늘에서 특 떨어지지 않고, 주의 사람의 손을 통해 그 필요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께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시려 할 때, 주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필요를 주의 사람 누군가를 통해 채워 주십니다. 그때 감사로

받으십시오. 또한 우리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때 기꺼이 가십시오

→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정성실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1.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 하나

2. 그가 너를 지키시리 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서오나

천지 거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 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무능합니다. 제가 무지합니다. 제가 나쁘고 악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소서

- 주께서 우리 필요를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보내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소서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3.1.21 불쌍한 무리들을 먹이시다, 마가복음 8:1-10)

1.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느끼셨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2. 때를 따라 돕는 은혜(grace to help in time of need)를 얻는다는 것이 나에게서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3.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누어 봅시다.
4. 하나님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시며 “너의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고, 너의 힘과 시간을 그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